

# 길림이동통신, 에너지절약과 탄소절감에 일조



복색 저탄소 운영을 실천하고 사회의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 감소를 지지하기 위해 길림이동통신회사에서는 국가의 '탄소 고봉 도달과 중립'의 결책 포치를 적극 관철하여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 감소 관리통제 메커니즘을 건립 건전히 하고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 감소 전문행동을 조직 실시하며 에너지절약 기술을 응용하여 청정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고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등 통신산업의 녹색 저탄소 발전을 끊임없이

이 모색해나가고 있다. 청정에너지 건설을 탐색하여 녹색 에너지 응용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재생성, 고효율 에너지절약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바 길림이동통신회사의 탄소 고봉 도달과 중립 목표 달성을 돕는 중요한 조치중 하나이다. 현재 길림이동통신회사는 이미 전 성의 5G 기지국, 데이터센터에서 태양광발전 응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력 용량

이 824KWP에 달하고 루적 발전량은 100만도를 넘었다. 이는 1,000여 톤의 탄소를 적게 배출한 것으로 된다. 사무실 구역에 지열 리용 기술을 도입하여 조겨울 건물 난방을 하는데 기존의 에어컨 시스템에 비해 약 4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한해에 약 37톤의 표준석탄을 적게 연소하는 것으로 된다. 동시에 통신설비 건물 구역에 기계실 폐열 회수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여 건물 난방을 실현했다.

기계실 에너지 효율 수준을 높이고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복색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데이터기계실 건물 난방 시스템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조하고 자연랭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토대로 기계실 폐열을 회수하고 기계실 에너지 소모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프로젝트는 연간 33.9톤의 표준석탄을 절약하고 질소산화물 1.27톤, 이산화황 2.5톤, 이산화탄소 84.5톤을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 효과가 뚜렷하다. 자연랭원 리용 시간을 연장하고 급수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한해 동안에 54만도에 달하는 전기를 절약하고 에어컨 펌프 주파수 변환 개조 및 수도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연간 270만도의 전기를 절약하고 있다.

길림이동통신회사에서는 71개 기계실과 336대 랭각형 에어컨 설비에 대한 최적화 사용을 통해 1년에 35만도의 전기를 절약하고 있으며 기지국 '휴면' 에너지절약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기지국 지능형 전기 절약과 제어 기술을 도입하여 전체 기지국의 안전하고 고효율적이며 자동적인 에너지절약 제어시스템을 실현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15% 이상 줄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길림이동통신회사에서는 녹색발전리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데이터처리, 인터넷 등 분야에서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 감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전 성 인민들에게 보다 에너지가 절약된 녹색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소 고봉 도달과 중립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이바지하고 있다.

/ 길림넷

## 북대항, 농기계 스마트화가 물고 온 봄파종 새바람



우리 나라 최대 농업간지역인 흑룡강성 북대항의 넓고 기름진 옥토에 북두위성항법시스템을 갖춘 신형 농기계 장비,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센서 등 현대 농기계와 농업기술이 적극 투입되어 '과학기술'을 탑재한 스마트 봄파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북대항그룹 삼강분사 칠성농장 16관리구역 재배업자 양림해가 포만을 이양기에 싣고 있다. 이양기가 평을 내며 작동하자 눈에는 벼모가 가지런히 줄지어 나타났다.

양림해는 "이는 일반 이양기가 아니라 북두위성항법시스템을 적용한 이양기다."라고 소개했다. 이 스마트 이양기는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루트에 맞게 자동주행한다. 작업 효율이 높아지고 인력이 절감돼 예전에는 모내기 8,9명의 인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1,2명이면 충분하다.

농기계의 작업 효율 향상은 농지의 평탄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수년간 북대항그룹은 각지에서 농지 개조를 활발히 진행해 기존의 약 4,667평방미터-5,333평방미터 당 1개의 작은 농지를 1만평방미터 정도의 큰 농지로 개조했다. 이

로써 수면 면적이 같은 상황에서 유효 재배 면적을 늘려 농기계 작업이 더욱 편리해졌다.

농업의 스마트화 역시 생산관리 측면에서 잘 드러난다. 북대항그룹 홍하농장 과학기술단지, 스마트 옥종 비닐하우스는 청록빛으로 가득 차있다. 모내기철을 맞아 단지내 벼모들도 속속 옮겨지고 있다. 과학기술단지 책임자인 왕위는 비닐하우스의 센서가 온도·습도·토양 습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작업자 휴대전화 앱에 전송해 직원이 원격으로 벼모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또한 데이터에 따라 온실에 자동으로 명령을 내리고 온도·습도·물·비료 일체화 작업을 실시간으로 자동제어해 벼모의 성장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양식생산의 '국가대표'로서 북대항그룹은 농업 현대화 및 스마트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북대항그룹의 농업과학기술 발전 기여률은 77%, 농업 종합 기계화률은 99.7%에 달했다. 농업 장비와 새로운 농업기술의 대중화 및 응용으로 현지 농업생산 수준이 꾸준히 향상됐으며 국가의 량곡안정 확보에도 일조하고 있다.

/ 신화넷

## 우리 나라 1월-4월 재정수입 회복성 성장세 유지

국가 재정부에서 발표한 데 의하면 1월-4월 전국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8조 92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동기 중소기업, 령세기업의 세금 연체 납부 데이터 입력 지수를 제하고 지난해 연중 출범한 세수감면 정책의 꼬리(翘尾) 부분 감면 등 특수 요인의 영향 이후 동기 대비 2% 좌우 성장하면서 회복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을 봤을 때 4월까지 중앙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3조 5,2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하락하고 지방 일반공공예산 본급 수입은 4조 5,676억 원으로 동기 대비 0.1% 성장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보면 지난 4월까지 전국의 세수 수입은 6조 6,9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하락했다. 특수 요인의 영향을 제하면 0.5% 좌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조 3,9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성장했다. 재정지출 면에서 각급 재정부문은 재정자원 통합을 강화하고 예산 시달



을 다그침과 동시에 국제자금 사용을 늘려 발행했으며 국가 중대 전략적 임무 및 기본민생 재력 보장을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재정지출 구도를 개선하고 당정기관이 알뜰살림을 할 것

에 대한 요구를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재력을 집중시켜 큰일에 투입했다. 통계에서 보면 1월-4월, 전국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8조 9,4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하고 중앙 일반공공예산 본급 지출은 1조 1,2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늘어났다. 지방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7조 8,2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늘어났다.

주요 지출 과목으로 보면 1월-4월, 교육지출이 1조 3,4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과학기술지출이 2,8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문화관광체육 및 미디어 지출이 1,0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늘어났다.

사회보장 및 취업 지출이 1조 5,7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나고 도시 농촌 사회구역 지출이 6,8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늘어났으며 농업, 립업, 수리 등 지출이 6,7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늘어났다.

전국 정부성 기금 예산 수출입을 따져볼 때 1월-4월, 전국 정부성 기금 예산 수입은 1조 3,4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하락하고 전국 정부성 기금 예산 지출은 2조 2,1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5% 하락했다. / 신화사

## 연길시인대, 전 시 농촌 거주환경 건설 상황 시찰

일전, 연길시인대 시찰조에서는 전 시 농촌 거주환경 건설 상황에 대한 시찰을 진행했다. 시찰조 일행은 조양천진 광석촌에 내려가 도시와 농촌이 만나는 결합부에서 건축스레기를 마구 버리는 상황과 태흥촌에서 농촌 거주환경을 다스린 상황에 대해 상세히 료해한 후 태흥촌에서 좌담회를 조직, 연길시농업농촌국이 연길시정부를 대표하여 한 전 시 농촌 거주환경 처리 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다.

최근년간 연길시정부에서는 농촌 거주환경을 다스리는 사업 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환경관리 기제를 진일보 건립하고 건전히 하였는바 '3가지 정리와 1가지 개조'를 둘러싸고 '3대 전역' 방안을 제정하였다. 농촌 생활스레기 처리 면에서 환경위생 일체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농촌 기초시설 건설

방면에서 팔도촌과 오봉촌 등 2개 촌의 시범 대상을 착실하게 추진하였다. 농촌 거주환경을 다그쳐 다스리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자금을 쟁취하여 농촌 전반 사업 제고에서 뚜렷한 성과와 효과를 가져왔다.

연길시인대 시찰조 관계자는 시농업농촌국의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농촌 거주환경 건설 사업은 향촌 진흥 전략을 실시하는 중요한 임무로서 향촌자원 최적화 배치를 실현하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는 중요한 조치인바 도시와 농촌 결합부 마을에 대한 거주환경 건설을 고도로 중시하고 혁신 방법을 중시하며 처리 효과를 제고하고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여 농촌 거주환경 건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리철수기자

## 국산 브랜드, 품질 봉사로 소비 열기 높아

"해외 브랜드를 구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국산 브랜드 열풍이 불면서 국내 제품의 가성비가 높아 오히려 더 많이 찾게 된다." 요즘 적잖은 소비자들이 이같이 말하면서 국산 브랜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했다. 자주혁신 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후속 서비스가 편리한 등 우세에 힘입어 최근 들어 국산 브랜드가 빠르게 쫓기고 국산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열조가 일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시대 발전에 따라 국산 브랜드는 다양한 활로를 마련해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화장품, 개인방호용품, 유아용품 등 제품에 대한 주목도가 뚜렷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은 국산 브랜드의 새로운 '자존심'을 치켜세우면서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 소비자가 즐



겨 찾는 립스틱, 파운데이션 등 화장품은 물론 남성 소비자가 즐겨 찾는 기초화장품, 면도 폼클렌징 등 제품은 모두 높은 구매력을 자랑하

고 있다. 이처럼 국산 브랜드의 열조가 높아진다는 점은 시대적 향수를 느끼려 하는 부모 세대는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보여주는 양상이다. 지금 젊은 소비자들은 이미 국산 브랜드 소비군의 주력으로 떠올랐다. '90 후', '00 후' 등 젊은 세대들이 국산 브랜드 전체 소비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범위에서 분석해보면 광동, 강소, 산둥 등 지역 소비자들의 국산 브랜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하북, 료닝, 하남, 산서 등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통계에서 소비자들은 감각적인 설계가 부여되고 과학기술 함량이 높으며 시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국산 브랜드를 구매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중 핸드폰 등 관련 제품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액정보호막, 액세서리 등이 주를 이루었다. / 경제일보



길림성 반석시 취시하진에서는 목이버섯, 표고버섯 등 식용균을 돌려싸고 당시 농민들을 인도해 정원 재배와 단지 재배를 결합한 버섯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다. 사진은 취시하진 사도촌 식용균 재배단지에서 농민들이 한창 버섯균주머니를 정돈하고 있는 모습이다. / 길림일보